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은 10일 최종 후보를 확정하고, 국민의 힘도 8일 2차 경선을 통해 네 명의 후보로 압축한다. 그런데 역대 전통 보수는 스스로 대선주자를 배출하지 못했다. 대부분 과거 보수 대통령이나 후보는 외부에서 주요 경력을 쌓은 자산으로 대선후보가 되었다.

정치 경력을 논할 수 없었던 건국 초기 이후 박정희·전두환·노태우는 군에서 주요 경력을 쌓았다. 김영삼도 보수와 대척점에서 민주화 운동을 한 이후 3당 합당을 했고 '탈(脫) 군부권위주의'로 보수의 권력을 연장시켰다. 대선에 두 번이나 출마했던 이회창도 영입 케이스다. 이명박은 대기업에서 만든 '신화'였다. 박근혜조차 당시 한나라당에 착근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막상 대통령 당선도 박정희의 딸이라는 후광이 컸다. 역대 대통령이나 대선후보들을 보면 하나같이 보수당에서 전배가 자라지 못했다. 다시 말해 보수당이 스스로 키우지 않았다.

이번에도 그렇다. 지난해 윤석열이 조국과 대치하면서 대선후보로 부상되기 전까지는 국민의힘 중심의 정

보수는 왜 스스로 대선주자를 못 만드나?

권교체가 무망했다. 그런 분위기는 정권 외부에서 윤석열과 최재형이 합류를 하면서 비로소 정권교체 분위기로 바뀌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보수 정당 정치인들은 줄곧 보수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막상 보수에 대한 이론까지는 아니더라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담론이나 설명조차 없다. 보수는 기존의 것을 지키는 것, 자유 우파, 또는 반공 정도로 뭉뚱그린 보수다. 보수가 무엇이며 보수의 가치나 도덕은 무엇인지 논하는 것은 어렵고 번거로운 일이라서 그냥 닦고 치고 좌파 공격으로 보여 줄 뿐이다. 그러다 보니 보수는 정치인마다 제각각 다르고 모호하다. 정치인마다 공격 좌표를 찍은 좌파가 다르다 보니 보수가 규정하는 좌파의 수도 점점 늘어나다.

'큰 정부'나 국가 주도 정책도 복지, 지역 균형발전, 평화화, 탄소제로·탈원전도 모두 좌파다. 사회적 책임과 연연인 기부도 좌파다. 밀도 끝도 없이 좌파다. 그러다 박정희까지 좌파가 되고 만다.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의 서울대 강연에서 한 학생이 '그러면 국가주도 경제성장을 이끈 박정희 정부도 좌파 사회주의 정권이나 고 되돌았다. 그렇다. 보수 논리로 하면 국토균형 개발과 고교평준화, 국가 주도 경제 개발을 이끈 박정희도 좌파다. 자기부정이다. 이번만이 아니다. 서양 특권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도 좌파다. 그러니 보수는 가치도 시대정신도 밀린다.

논리는 꼬리를 문다. 평준화가 좌파면 국민 70%가 하향평준화 좌파 교육을 받은 셈이 된다. 수준 낮은 '따라지'다. 그런데 60대 초반 이하 평준화 세대가 IT,

BT, CT산업에서 한국의 세계화와 한류를 만들었다. 물론 그 이전 70년대 비평준화 세대의 산업화 역할도 있었지만, 하향평준화 소리를 들은 평준화세대 기본은 어떨까.

보수는 이념이 아니라 한다. 그러나 보수 정치인은 보전을 강조하면서 기득권을 지키는 수구화가 되었고, 상대 당을 좌파 이념으로 공격하면서 교조화 되었다. 보수는 이렇게 스스로 수구 교조화됨으로써 거의 종교 집단 모습을 띤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성 보수 정치인의 당내 힘은 막강하다. 그 힘은 당과 자파 결속에서 나온다.

이념과 정치적 철학이 빈약하다 보니 그냥 '몽치'다. 그것도 '의리'로. 몽치적 않으면 배신자다. 그런데 이렇게 몽치 당내에서 힘은 키웠지만, 국민의 대중적 지지를 받는 대선후보로 스스로 크지는 못한다. 아니 클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키워 주지도 않는다. 국민 대부분을 좌파로 돌리고 박정희도 좌파로 만들고 있으니.

스스로 대선후보를 만들어 내지 못하는 보수는 정권 교체기마다 정치적 위기를 자초한다. 그리고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대선후보 영입이라는 방식을 택한다. 그러나 영입으로 끝나지 않는다. 당의 보수 노선에 신앙고백을 요구하고 선거 조직을 장악한다. 이렇게 되면 영입 대선주자는 이전의 합리성·개혁성·혁신성의 정치적 자산을 차츰 잃게 되고, 대중적 지지도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해서 보수 정치인은 스스로 대선주자가 되지도 못하고 영입된 대선주자마저 망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지금도.

종교칼럼

세종대왕이 선교사를 만난다면



최현열
광주 은교회 담임목사

세계에 통용되는 언어의 수는 과거 팔천 개에서 만 개 정도로 알려졌는데 가장 최근 발표된 자료인 '에트놀로그. 세계의 언어들' (2009)에 따르면 육천구백여 개가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물론 학자에 따라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다는 것이 맞는 표현이겠다. 그리고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은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로 약 300개의 언어이며, 그 뒤를 이어 '피노키오의 모험' 260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174개 언어 등의 순이다. 그런데 이 통계에 들지 않는 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책이다. 부동의 1위라는 것에 논란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통계에는 넣지 않는다고 한다. 그럼 몇 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을까. 성경 전체 또는 일부를 번역한 것을 다 합하면 약 이천오백여 개의 언어로 번역되어져 있다고 한다. 이 또한 2008년도 통계이니 현재는 더 늘어났으리라 여겨진다.

일제 강점기 기독교의 큰 역할이 있었는데 신사 참배 반대 운동과 한글 교육 및 보급이었다. 신앙을 지키는 것과 선교를 위한 목적이었다고 백 번 양보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민의 정신과 언어를 지키는 것에 크게 이바지

한 것은 사실이고, 독립을 앞당기는 일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본다. 당장에 나의 아버지가 독립유공자 후손이 된 것도 증조부가 신앙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 신사 참배 반대 운동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시대에 한글의 보존, 교육과 보급에 큰 역할을 한 점도 알아 주었으면 한다.

할버트 선교사는 1891년 왕실의 초청을 받고 교사로 와서 한글 교과서인 '사민필지'를 만들고 '기운뎃집 적기' 등 맞춤법을 연구했으며, 1893년에는 배제학당에 국문연구소를 설립해서 주시경 등 한글학자들을 배출했다. 1894년 선교사들에게 의존하던 고종은 법률과 직령을 국문을 본으로 삼고 한문을 혼용케 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고, 1896년 기독교도들에 의해 순 한글신문인 독립신문이 창간되었다. 1910년대에 한글의 문법체계를 주시경 선생 등이 정리하면서 한글이란 명칭이 확정되었고, 1937년에는 지리산 노고단 선교사 수양관에 모인 선교사들의 논의를 통해 예례미아서를 제외한 구약 성경의 한글 번역본이 결정되었다. 성경의 번역 과정에서 한글의 단어와 문법 등이 정리가 되었던 것이기에 한글의 역사와 성경 번역의 역사는 떼어놓을 수 없다. 교회가 교회의 목적을 위해 한 활동이 국가적으로 큰 이익이 된 사례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동아일보 1920년대 사설에 우리나라 문명들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글이 있었다. 문명률이 99%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며 1930년대 조선총독부에서 조사한 '조선국세 조사보고'에 따르면 80% 달한다고 나타나 있다. 다소 울라간 이유가 한글 보급이라기 보다

는 일본어 교육에 의한 상상이 아닐까 싶다. 그런데 자칫 한글이 소실되고 일본어가 우리의 글이 될 뻔한 절체절명의 때에 꾸준한 한글이 보급되고 교육될 수 있었던 것은 선교사들에 의해 세워진 학교들과 신자들에 보급된 한글 번역 성경이 큰 힘이 되었다. 나의 어머니는 1935년 생으로 소학교에서 일본어를 배우셨다. 그렇기에 한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셨다. 하지만 성경책 만들기는 어릴 때부터 줄줄 줄 알았다고 하신다.

세종대왕께서 가장 기뻐할 사람이라면 함께 한글을 창제한 사람들일 것이고 또한 일제 강점기 한글을 지키고 보급한 선교사들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이유로 세종대왕이 선교사를 만난다면 기뻐하며 감사하지 않겠는가 말이다.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이 말을 반대로 하면 '말 한 마디 잘못하면 천 냥 빚이 생긴다'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말 실수를 해서 엄청난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한글 창제 당시 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전대를 받았던 한글이 성경으로 번역되어 널리 보급되고 읽혀졌을 뿐만 아니라 성스러운 책으로 귀히 여김을 받으니까 그 글자 또한 귀히 존중받게 된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니겠는가. 이러한 한글이 전 세계로 뻗어 나가는 시대를 맞이할 것이라기 누가 예견했겠는가? 이러한 시대에 걸맞게 은어나 비속어보다는 아름다운 한글이 더 널리 보급되고 천국의 언어를 담아 널리 널리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란다.

社說

한빛원전 총체적 부실 대책 마련을

영광 한빛원전의 총체적 관리 부실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더욱더 드러났다. 확인된 사안은 부실시공과 무자격자에 의한 부실 정비, 규제 당국의 느슨한 지도 관리, 화재 발생 시 대응 부실 등 한두 가지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광주 광산갑) 국회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영광 한빛원전 5호기 원자로 헤드 작업 과정에서 내구성이 떨어지고 구역 제품이 비해 훨씬 산 용접봉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로 헤드 관통관을 보수·용접하면서 시공업체가 규격 제품이 아니라 불법 하도급을 통해 납품받은 저질 제품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용접봉은 접합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부실 정비를 인한 사고 위험 가능성이 상존한다.

부실 용접을 막지 못한 것은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책임이 크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의 부실한 관리 감독에도 책임이 있다. 원안위는 지난 7월 부실용접 관련

재작업을 승인한 후 재검사까지 3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사업자와 시공업체의 보고만 믿고 자체 검증을 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한빛원전은 화재에도 취약하고 대응도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희 국회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 최근 5년간 국내 원전 화재 아홉 건 중 다섯 건이 한빛원전에서 발생했고 화재 신고도 가장 늦었다. 2019년 3월 한빛원전 1호기에서 발생한 화재는 영광소방서 신고까지 37분이나 걸렸다. 한수원 측은 실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만 외부 소방서에 연락하도록 돼 있는 규정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현실에 맞지 않은 규정은 과감하게 고쳐야 할 것이다.

이번 국감에서도 확인됐듯이 한빛원전의 총체적 관리 부실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제 원안위 등 규제 기관은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정부가 직접 나서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수사권 독립 경찰 신뢰 회복 나서야

경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됐으나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 수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수(창원시 의창구)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에서 고소인 등 사건 관계인이 경찰의 수사 과정과 결과에 불만을 품고 이의를 제기한 건수는 2018년 178건(광주 80건, 전남 98건)에서 2019년 204건(101건, 103건)으로 늘었다. 광주 경찰이 지난 1월 자체 종결했던 1032건 중 17건에 대해 재수사를 요구했던 경찰은 지난 2월 자체종결(불송치) 사건이 743건으로 줄어들었음에도 두 배 가까이 증가한 30건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했다. 보완 수사 요구도 67건(1월)→86건(2월)→125건(3월) 등으로 늘었다. 수사가 그만큼 미진하다는 방증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시울)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사건 1건을 처리하는데 광주경찰은 50.8일, 전남경찰은 62.4일 걸렸다. 전남경찰의 경우 2017년 43.2일→2018년 48.9일→2019년 50.4일→2020년 55.7일→2021년 62.4일로 4년 전보다 20일 가량 늘어났다. 하나의 사건 처리에 두 달 넘게 걸리는 셈이다.

사건 처리 지연과 함께 수사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로 가던 고소·고발 사건들이 일선 경찰서로 몰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사 민원이 늘고 부실수사가 증가하는 것은 경찰에 대한 신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소·고발 사건 처리에 짓눌려 서민 생활과 직결된 기획수사 등을 게을리해서도 안 된다. 경찰 당국은 초심으로 돌아가 수사의 질을 높이고 공평정대한 사건 처리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바람의 아들' 이종범은 배트와 헬멧 그리고 신발에 참을 '인' (忍) 자를 새겨 넣었다. 초등학교 때 운동을 시작한 이래 많은 것을 참아야 야구를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참을 '인' 자와 함께 30년 가까운 선수 생활을 하면서, '야구는 이종범'이라는 찬사를 받을 수 있었다.

프로야구 선수들은 자기 분신처럼 소중한 모자나 배트에 '욕심을 버리자' '타인을 의식하지 말자' 등 좌우명을 적어 넣기도 한다.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 또는 우정·신앙과 관련된 문구를 새기기도 한다. 좀 더 나은 플레이를 위한 영감의 '승리 부적'

나라가 떠들썩하다. 여기에 대선 경선 TV토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손바닥에 잉크 '왕' (王) 자를 새기고 나온 뒤 '주술 논쟁'까지 뜨겁게 달아올랐다.

미국 프로야구에서도 몸에 새긴 문신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프린스 필더라는 선수는 세계 각국의 언어로 자신의 이름을 새겼는데, 한글로 쓴 '왕자'는 TV 중계 화면에서 가장 잘 보이는 왼쪽 귀 밑 부분에 있었다. 최연소 메이저리그 50홈런을 기록하고 MVP 후보로까지 거론되던 필더는 월드시리즈 우승 반지를 차지하기 위해 더 큰 구단 텍사스 레인저스로 옮겼지만 성공하지는 못했다. 다양한 문신을 새긴 목에 이상이 생겼고 결국 목 수술을 받은 뒤 '역대급 멧뒤'라는 비난을 들으며 야구계를 떠난 것이다.

동전에는 양면이 있고 세상이 또한 그렇다. '승리 부적'은 팬들을 기쁘게라도 한다. 하지만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 무속인이 등장하고 부적이나 역술이 개입되는 것은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다. 최순실 사태를 겪은 게 불과 5년 전 일이다. /유재관 편집장 jkyou@

부적

공하지는 못했다. 다양한 문신을 새긴 목에 이상이 생겼고 결국 목 수술을 받은 뒤 '역대급 멧뒤'라는 비난을 들으며 야구계를 떠난 것이다.

동전에는 양면이 있고 세상이 또한 그렇다. '승리 부적'은 팬들을 기쁘게라도 한다. 하지만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 무속인이 등장하고 부적이나 역술이 개입되는 것은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다. 최순실 사태를 겪은 게 불과 5년 전 일이다. /유재관 편집장 jkyou@

기고

'광주 출판 진흥 조례' 시행을 대환영한다



정창재
출판사 대표
전 광주문화예술회관장

저술가 겸 출판인인 필자에게 지난 9월 29일은 참으로 잊을 수 없는 날이다. '광주광역시 지역 출판 진흥 조례'가 드디어 이날 시행에 들어가 출판계에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주변에 책을 쓰는 사람이 드물고, 한글 출판계에 명함을 내놓을 만한 지역 출판사가 없으니 그 가치를 느끼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출판인인 필자에게는 대단히 큰일이다.

그런데 먼저 이 조례안을 누가 발의했는지부터 살펴 봐야 한다. 조례 발의권은 시장(실국장)과 시의원에게 있는데 누가 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오래 전에 제정돼야 할 조례가 이제야 만들어진 것은 시책말로 어느 한 쪽은 직무 유기를 했다는 얘기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해 시행하도록 애쓰는 김나운 시의원에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한다.

왜 출판 산업이 중요할까? 인류 역사 이래로 출판은 중요한 가치를 지녀 간단히 기술하기 힘들다. 현재의 여건에서만 본다면, 출판은 먼저 그 지역의 인문학과 인문 정신문화를 좌우해 팬데믹 시대를 이겨내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또 문화산업적으로 본다면 한 개의 출판사(신문사, 잡지사 등 포함)는 저술가, 교정 교열가, 편집 디자인사, 인쇄사·제본사·배부사·운송사, 언론사 및 홍보 대행사 그리고 서점과 연동돼 있다. 따라서 책 한 권이 나오면 수 개의 업체가 움직이면서 일거리를 만들어 준다. 나아가 지역 독서 문화에 지대한 연관을 갖고 있다. 특히 그중에서도 출판사와 연동해 책과 독자가 만나는 장소를 제공하는 서점이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

차체에 좋은 결과를 맺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보면 그 답이 나온다. 광주와 달빛동맹을 맺고 있는 대구시를 보자. 물론 대구는 광주시보다 시세가 크지만 광주시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을 한다고 할 때 대구는 크게 세 가지를 챙겼다. 그것은 뮤지컬, 오페라, 출판 산업이다. 광주가 최첨단 문화예술산업에 초점을 맞출 때 대구는 반대로 전통예술 산업에 초점을 맞출 때 대구는 반대로 전통예술 산업을 육성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역이 됐다. 참 아이러니하다.

출판 산업을 살펴보자. 대구는 20년 전부터 '출판

문화 산업단지'를 조성하더니 2017년에 '대구출판산업 지원센터'를 열고, 2019년에 '대구광역시 지역 출판 진흥 조례'를 제정한다. 산업단지, 센터 건립에 일정 부분 국가 지원을 받았으나 운영은 시비로 한다. 지원센터는 조례에 의거해 출판사, 서점, 시민 독서를 향상시키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참 획기적이다. 대구시는 2021년 본 예산으로 9억 3000만 원을 지원했다.

센터 사업 중에 광주 사람들 상상을 초월하는 사업이 하나 있다. 그것은 '대구시민 도서 구입비 지원 사업'이다. 센터가 35개 정도의 서점을 선정해 놓고 시민들에게 도서를 구입하게 한다. 시민 1인당 10만 원 범위 내 도서 구입비 중 타 지역 출판사 도서는 50%, 대구 지역 출판사 도서는 80%를 지원한다. 즉 시민 1인당 5만 원~8만 원을 지원한다는 것인데 전체 7000만 원을 투자하니 시민 1400여 명에게 정신문화 복지비를 지원하는 셈이다. 이렇게 하여 출판사와 서점, 시민 모두가 더불어 사는 대구를 만들어 간다. 대단히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광주는 이제 첫걸음을 뗐다. 집행자인 광주광역시에는 조례에 규정된 세부 실천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조례에 서점이 활성화를 위한 내용들을 더 채웠으면 한다.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 11(일간)		우)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